광주·전남 창업 열기 되살아난다

올 3분기 신설법인 955개… 7년만에 최대치 경신

5천만원 이하 생계형 비중 줄어 창업 질도 개선

광주·전남지역 신설법인 수가 7년만에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창업 열기가 되살아 나고 있다.

더구나 5천만원 미만의 생계형 소액 창업 비중은 줄어드는데 반해 5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의 중간 규모의 신설법인이 늘어나 창업의 질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중 광주·전남지역 신설법인수는 955개로, 2분기 928개보다 27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58개나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2년이후 분기별 수치로는 가장 높은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난해 3분기 697개로 전분기(825개) 대비 128개나 급감했으나 이후 706개→860개→928개→955개로 매 분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473개로 전분기(448개)보다 25개, 전남은 482개로 전분기에 비해 2개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은 각각 18개, 7개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은 1개, 농림어업과 교육서비스업, 오락·문화 등 기타 업종은 51개나 증가했다.

제조업은 수입원자재 가격상승과 내수 부진에 따른 채산성 악화가 악재로 작용했고, 건설업은 지방건설업의 부진이 발목을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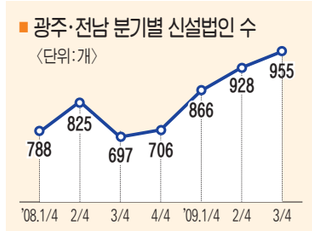
자본 규모별로는 2억5천만원 미만 창업이 831개로 전체 신설법인의 87.0%를 차지한 가운데 5천만원 미만이 51.0%, 5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은 36.0%에 달했다.

특히 5천만원 미만 생계형 창업은 487개로 전분기보다 15개 줄었고, 전체 신설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분기 54.1%에서 51%로 3.1% 포인트 뒷걸음질쳤다. 반면 5천만원~2억5천만원 미만의 창업 비중은 0.2%포인트 상승했다.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임대업과 사업서비스업은 54개와 78개로 전분기에 비해 각각 23개, 14개 증가한 반면 건설업은 -27개, 기타 서비스업은 -14개, 금융보험업은 -10개가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신설법인 수 증가는 실직자와 젊은 무직자들이 소규모 창업에 뛰어든 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창업 열기가 되살아 나고 있다는 증거"라며 "중급 규모의 창업 비중 증가도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지방 中企에 연간 5천억이상 대출 지원

새출범 한국정책금융공사

光銀 등과 '온-렌딩 협약'

정책금융공사와 지방은행이 온-렌딩대출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문동성 경남은행장, 이장호 부산은행장, 송기진 광주은행장,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 홍성주 전북은행장, 하춘수 대구은행장, 허창기 제주은행장.

새로 출범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연간 5천억원 이상을 대출해주기로 해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해소될 전망이다.

1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정책금융공사 건물에서 광주은행 등 6개 지방은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온-렌딩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온-렌딩대출이란 공사가 지방은행에 중소기업 대출자금을 빌려 주면 지방은행이 여신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기업을 골라 대출을 주는 방식이다.

정책금융공사는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규모를 연간 5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직 각 은행별 배정액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방법을 마련하고 있어 이달 중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에서 분리된 정책금융공사는 지난 달 28일 공식 출범했으며 정부의 정책금융 업무를 맡고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중소기업이 성장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균형 발전 등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광주·부산·전북은행 등 6개 지방은행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신경을 써주고, 기업 구조조정도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현대·기아차, 제휴 카드 서비스 UP

현대·기아자동차는 현대카드의 제휴 멤버십 카드인 M-BLU 및 M-Q 카드의 자동차생활 관련 제휴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카드 고객이 현대해상 하이카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3만원의 할인혜택이 제공되고 최고 3만원 한도에서 M포인트(1포인트=1원)로 보험료 납부가 가능해진다. 또 GS칼텍스 주유소에서 주유할 경우 ℓ당 100원까지 M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M포인트 적립률도 기존 ℓ당 50포인트에서 80포인트로 확대했다.

이밖에 해당 고객은 현대·기아차의 전국 2천300여개 AS 네트워크인 블루핸즈와 오토큐에서 쓸 수 있는 2만원 상당의 정비서비스 쿠폰을 매년 받고, 정비비용의 30%를 M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문의는 현대·기아차 고객센터(080-600-6000, 080-200-2000)로 하면 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

■ 주간 증시 포커스

투자심리 불안 변동성 커질 듯

시장 접근 당분간 관망 필요

미국 증시는 심리적 저항선의 돌파 과정에서 등락세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투자심리가 과도하게 악화되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추후 급격한 하락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금주에는 정례 FOMC(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주목된다. 정책금리의 조정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향후 통화정책 및 경기부양책의 진행에 대한 코멘트 내용에 따라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에 지난 주말에 수치로 제시된 국내 경제의 펀더멘탈 동향은 긍정적이었다. 산업생산의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고, 재고의 감소와 출하의 증가가 동반되는 경기회복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음도 재확인됐다. 하지만 국내 증시에서는 불안심리가 사실상 시장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의 GDP 호재로 전세계 증시가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는 가운데서도 차별적인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던 지난 주말의 모습은 국내 증시가 더 이상 외국인 동향이나 외부 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동조화되지 못하고, 내부적인 심리 변수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지난 주말 개인들의 대규모 선물매도와 이에 따른 프로그램 대량 매물이 결국 국내 증시의 차별적인 하락세를 불러온 모습은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블딥과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대한 시장의 걱정이 개선되지 못한다면 시장의 불안정한 변동성 또한 당분간 쉽게 가라앉기가 어려워 보인다.

불안심리가 확산됨에 따라 지지력을 나타내던 주요 지지선이 지난주 잇따라 무너졌다. 코스피 지수는 한 달 동안 5.5% 하락해 월간 기준으로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직전 3개월 동안의 상승률이 20.4%, 3월 이후 상승률이 57.4%라는 점을 감안하면 10월의 조정은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나타날 수도 있는 조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증시는 투자심리의 악화라는 상황에 처해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취약한 심리에 따른 불안정한 변동성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금주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선물시장에 크게 휘둘리는 변동성 장세가 예상된다. 단기에 100포인트 가까운 급락을 감안하면 하락압력의 완화나 주초반 기술적인 반등도 기대되나 반등이 나오더라도 현재와 같은 투자심리 아래에서는 안정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시장에의 접근은 당분간 안정세 회복 여부를 관망한 이후로 미루는 편이 나을 것으로 판단된다.

박 종 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